



조선의 아름다움과 21세기의 아름다움은 무엇이 다른가

- 외모지상주의의 현대사회를 비판하며 「한문사료강독」과 「동양미술사」 강의페어링

사학과, 정가영, 202221752, 한상우 교수님 지도

목적

아름다움은 단일한 정의를 가질 수 없는 개념이다.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사회의 문화·가치관·윤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획일화된 외모 기준을 중심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선 시대에는 외면의 정갈함과 함께 내면의 덕성과 교양이 '아름다움'으로 간주되었다. 본 보고서는 「한문사료강독」에서 고문헌을 다루었던 경험과, 「동양미술사」에서 살펴본 <미인도>를 바탕으로 조선의 미의 기준을 탐색하고, 이를 21세기의 외모 중심 사회와 비교함으로써,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조선 시대와 21세기 현대 사회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시대의 미의식이 드러내는 문화와 사회적 흐름을 탐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외모지상주의가 과도해진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물음을 현대인들에게 던지하고자 한다.

조선에서의 아름다움



- 정갈한 외모, 단정한 태도**
아름답다고 불리는 조선시대 여인은 화려한 장식 없이 머리를 단정히 묶고, 간결한 의복을 입고 있다.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없고, 표정 또한 차분하며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외모: 인격을 드러내는 수단**
겉모습의 단정함은 내면의 덕성과 절제를 반영하는 외적 표현으로 기능한다. 단정한 용모는 곧 교양 있고 절제된 삶의 태도를 암시하며, 이는 유교적 가치관과 연결된다.
- 품위 있는 고요함**
의복의 색채는 전체적으로 은은하며, 장신구도 절제되어 있다.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신윤복, 《미인도》, 조선 후기. 종이에 담채. 간송미술관 소장.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dcd=12&ccbaAsno=1973000&ccbaCtcd=11> (검색일: 2025.05.21).



신윤복, 「장옷 입은 여인」, 18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https://www.museum.go.kr> (검색일: 2025.05.21).



경기도박물관, 『기계유씨 초상』, 경기도박물관 소장품. 1913년. <https://musenet.ggcf.kr/collections/4> (검색일: 2025.05.21).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효공과 정경부인 영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5666> (검색일: 2025.05.21).

- 『규합총서(閨閣叢書)』 - 색양편(色樣篇)
원문 발췌: “婦人之衣服, 宜素淨而不華麗, 飾不過度, 則見其德。”
해석: 부인의 옷차림은 소박하고 단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야 한다. 장식이 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덕이 드러난다.
→ 겉모습의 단정함이 내면의 덕성을 반영한다는 미의식을 보여주는 문헌
- 『여범(女範)』 - 부덕편(婦德篇)
원문 발췌: “婦德者, 謹言慎行, 恭敬持家, 內外有序, 是為美。”
해석: 부덕이란 말과 행동을 삼가고, 공경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안팎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아름다움이다.
→ 여성의 행동과 태도, 가정 내 역할 수행이 곧 미덕이자 아름다움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줌
- 허난설헌(許蘭雪軒) - 「규원가(閨怨歌)」
원문 발췌: “紅顏薄命, 空守空房, 心如止水, 志潔如蘭。”
해석: 붉은 얼굴은 명이 짧고, 빈 방을 외롭게 지키며, 마음은 고요한 물처럼 맑고, 뜻은 난초처럼 깨끗하다.
→ 외모보다는 맑은 마음과 고결한 뜻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정서가 드러남

21세기 현대사회에서의 아름다움



21세기 미인상 (연예인 합성 사진: 김태희, 이영애, 한가인, 한예슬, 송혜교, 손예진, 이민정)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들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
→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미의 기준이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미인상은 '자연스러움'을 표방하면서도 개인의 고유한 매력이나 개성은 배제된 채 평균화된 얼굴이 이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결국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양성보다는 획일성과 정답으로 수렴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 수많은 이들을 자신의 외모로 복제시키고 외모 기준을 산업화한 인플루언서



만족감 표현: “드디어 나도 왕징 왕국에 입성했어요!”
VS
BUT, “다들 똑같은 얼굴로 성형하는 게 너무 섬뜩하다”

이미지 출처: (左) 아이디 병원 「중국에서 핫한 왕징 성형, 엘프귀 성형까지 등장?」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2025. 3. 28. <https://www.youtube.com/watch?v=GgApmnOpwTM!>
(中) 코양남TV 「왕징 성형, 코수술로만 가능한가?」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2025. 3. 11. <https://www.youtube.com/watch?v=fOT1mGw2bk>
(右) 인스타그램 @izitmag, 게시일자: 2024.09.04. https://www.instagram.com/reel/C_arnSBOIPx/

2) 不老長生 현실화, 죽은 자의 세포를 주입하는 레누바 시술



린제이 로한 레누바 시술 전 후의 모습
이미지 출처: 인스타그램 @_hypegoing 게시일자: 2025.01.27, https://www.instagram.com/p/DFUgUeMS8hC/?img_index=5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 '죽은 자의 지방' 레누바 주사제, 회춘의 비밀인가 위험한 미용 트렌드인가?



역만장자 브라이언 존슨, 레누바 시술 후 부작용 생겨

이미지 출처: Johnson, Bryan. "ECM 시술 후 얼굴 부기 사진." *코메디닷컴*, 18 Nov. 2024. <https://kormedi.com/1737607/ShutterstockSupport+5>

“늘 젊게 살고 싶어,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뻐질 수 있을 거야”
VS
BUT “죽은 사람의 세포를 주입? 기괴해. 무서운 웹툰에 나올만한 이야기야”

결론

'아름다움'은 시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다. 조선 시대의 아름다움은 유교적 질서 속에서 정결함, 절제, 도덕성과 내면의 품위를 중시하며, 여성은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아름다움은 외적 치장보다는 절제된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시에 정조, 순종, 침묵 등의 규범은 여성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획일성을 낳았다. 반면 현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지만, 자본주의와 디지털 미디어가 결합한 외모 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기준을 만들어냈다. 미디어는 특정 얼굴과 몸매를 이상화하고, 외모는 경쟁력과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는 성형수술의 일상화, 외모 비교, 정체성 혼란을 유발하며, 외형을 중심으로 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과 현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성에게 특정한 '모양'을 요구해왔다. 전자는 내면의 정숙함을, 후자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젊음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를 이상화하기보다, 각 사회가 여성에게 어떤 미를 요구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오늘날 아름다움은 취향의 대상이 아닌, 경쟁과 소비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외모의 자본화는 다양성을 억압하고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획일화된 외모 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가 만들어 낸 외모지상주의를 넘어서 '나만의 미의 기준'을 모색하는 성찰이다.